

01
2020

재외동포의



특집 _ '재외동포 이해제고와 학교교육 연계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화제 _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중단, 이롭지 않아"



“재외동포의 투표 참여는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과 바람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재단은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과 한글학교 교장·교사의 모국초청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입양동포 등 그동안 한국 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됐던 동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한국 초·중·고 교과서에 재외동포 수록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설립하는 재외동포 관련 시설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대한민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이 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외동포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에 투표하고 이를 통해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재외동포들은 대통령 선거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국회의원 투표 역시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할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당은 당연히 여러분 각자가 선호하는 정당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들이 각자의 거주국에 살면서 모국의 투표에 참여하려면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의 투표참여는 그 자체가 실로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모국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본인과 자녀와 후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투표하시려면 2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이뤄지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한 번만 등록하시면 차후 다른 선거에서도 투표자격이 생깁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은 재단이 재외동포 여러분이 어렵거나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곳, 기쁨 때 가장 먼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재외동포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재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우 성**

2020년 1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 우 성



- 02 권두언 "재외동포의 투표 참여는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04 한인회장 신년사 전 세계 한인회장, 한 목소리로 "4월 총선, 꼭 투표합시다"
- 06 특집 '재외동포 이해제고와 학교교육 연계'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 08 화제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중단, 이롭지 않아"
- 10 기획 하와이 이민선에 실은 '미주 한인의 꿈' ... 올해로 117주년 맞아
- 12 글로벌 코리아 재중동포로는 처음으로 세계한상대회장에 선출된 표성룡 회장
뉴욕에 미주 최초 한인이민사박물관 만든 김민선 전 한인회장
봉 감독과 칸영화제부터 호흡 맞춘 재미동포 최성재 씨
- 14 한민족 공감 1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남북 함께 노력해야"
- 15 한민족 공감 2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쟁 70주년... 한·미동맹 기반해 한반도평화 노력"
- 16 동포소식 NASA 달·화성탐사 임무 우주인에 한국계 조니 김 포함 외
- 19 동포 캘린더 호주 한인들, 뉴사우스웨일스 산불 피해 돕기 모금 외
- 20 유공 동포 베트남 축구를 변방에서 정상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
- 21 지구촌 통신문 "한국 주재 스웨덴 대사로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22 동포문학 우리 집, 24인의 독립영웅
백재흠 카자흐스탄
- 24 OKF 뉴스 "해외 입양동포, 혈육 찾기 쉽도록 'DNA은행' 설립 추진"
- 25 우리말 배워봅시다
- 26 기고문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이극범 전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회장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회장, 한 목소리로 “4월 총선, 꼭 투표합시다”

“전 아시아 동포사회에 캠페인 붐 조성해 투표율 높이겠다”

심상만 (사)아시아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존경하는 (사)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아총연) 회원 여러분. 2020년은 제21대 총선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2월 15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고,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세계 750만 동포 중에서 대선에서는 22만 명, 총선에서는 6만 명이 아주 미미하게 투표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적은 투표율 때문에 세계 한인회총연합회 회장들은 2020년에는 투표율을 높이고자 캠페인을 벌이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아총연은 선거 참여 추진 본부를 구성해 일차로 1월 7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베트남, 태국을 방문하고 2차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전 아시아에 캠페인 붐을 조성하여 아시아의 투표율을 높이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국의 근대화를 견인하고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내었듯이 한반도 통일의 과업에 유럽 한인 동포들이 지렛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의 위상을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투표율을 높이는 일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시간이 되었으면”

백승국 대양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경자년 흰쥐의 해를 맞이하여 전 세계 재외동포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12지신 가운데 쥐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인내와 생활력이 강한 동물로 꼽힙니다. 열두 띠 가운데 첫머리에 등장하며 풍성한 한 해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3·1 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 깊은 해를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모국은 또 한 번 일본의 경제적 침탈과도 같은 행위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NO 일본’이라는 국민적 단합, 소재 국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상생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고 기술 자립의 큰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국은 물론 전 세계 한민족이 보여준 저력을 기반으로, 특히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20년 한 해,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외동포 위상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투표율 높이는 것”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2020년은 동서독이 통일을 이룬 지 30년이 되는 해로, 한반도 통일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서독의 통일에서 얻은 교훈은 독일의 번영과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미래 또한 통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19년 일제 강점기로부터 시작된 유럽 한인의 역사는 독립운동사요,

“투표하지 않는 계층은 결코 보호받지 못해”

박원우 중국한국인회 총연합회 회장

부디 올해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중국한국인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중국한국인회의 재정 자립화입니다. 둘째 중국 80만 한국동포의 권리 신장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하지 않는 계층은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가 향상시키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서 우리가 5만 명 이상 참여한다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선거와 한국 재외국민선거에 더 많은 한인 참여토록 할 것”

로라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한인회 회장

LA한인회에서는 2020년 새해에 한인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인재발굴에 힘쓰겠습니다. 2020년에 예정된 미국선거와 한국의 재외국민선거에 더 많은 한인이 참여하여 한인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인투표율 향상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인들의 재외국민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선천적 복수국적 등 하루속히 우리 동포들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류사회 및 타인종 커뮤니티와의 협력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우리 한인타운의 수십 년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는 월서커뮤니티플랜을 위해 미국 유수 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타인종 커뮤니티와의 교류 활성화에 더욱 힘써, 한인타운 발전뿐만 아니라, 타운치안, 주민 간 분쟁, 노숙자 문제 등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일 우호에 더욱 진력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동포에게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가지의 ‘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어느 한 쪽의 뿌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 모두 저희를 키워준 소중한 뿌리입니다. 올해는 저희 스스로 재일동포의 ‘뿌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한·일 우호에 더욱 진력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저희 민단은 한·일 우호의 다리, 동포 간·차세대 간의 다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다리 등, ‘세 가지 다리’ 만들기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내 및 세계 각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저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여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점배 아프리카·중동 한상 총연합회 회장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 2020년은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중동(아·중동)의 지난 대선 선거 참여율은 총 재외 선거권자 3만7,000여 명중 1만1,000여 명의 동포께서 선거에 참여하여 약 30%에 달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재외동포보호법을 아·중동의 실정에 맞게 제정해 달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권익 신장을 위해선 우리의 권리인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중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중동 지역에서 이번 총선에 지난 대선의 두 배가 넘는 선거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 참여가 필요합니다. 2020년은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서로 신뢰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한마음 한뜻의 아·중동 동포사회가 되도록 두 손 꼭 맞잡고 나아 갔으면 합니다. 



‘재외동포 이해제고와 학교교육 연계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재외동포재단 주최...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실천 방안 논의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이해를 높이고 학교 교육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워크숍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주최로 열렸다. 워크숍은 1월 3~4일 재외동포재단 제주본사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됐으며 초·중·고 교사 25명과 학계·언론계·교육계 전문가 10여 명 등 35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초·중·고 학교급별 교과목별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단일 민족 신화를 더는 유지하기 힘들니만큼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언어와 민족의식의 공통성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족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는 혈연·언어·민족의식·지역인데, 재외동포는 지역의 공통성이 없고 동포 2세·3세로 내려가 언어의 공통성도 희미해지고 있다”면서, 교육을 통한 공통성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진오 역사박물관장, “재외동포를 보는 국민 인식 이중적”

주진오 관장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한 재외동포의 이주사와 중국·러시아·미국 등지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을 소개한 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윤동주·안창호·홍범도·임천택 등 망명 독립운동가들이 재외동포였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관장은 재외동포를 보는 국민의 이중적인 인식도 지적했다.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구분해 차별하는가 하면, 민족과 국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성공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실패하면 현지인’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는 “초기 이민자들이 모국에서 갖고 갔던 물건들은 귀중한 사료인데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버려지고 만다”면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재외동포재단과 협력해 재외동포 역사 발굴과 자료 수집에 나서고, 한국사에 특화된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한국사회과교육학회장)는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개발 중인 고교 교과서 ‘세계 속의 한인’ (가칭) 진행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정부 부처·유관기관 담당자와 집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교과서 개발을 위한 회의를 연데 이어 12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 집필위원 등이 집필 계획 수립을 위한 연수에 참여했다”면서 “단원을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지역별 재외동포 생활 ▲재외동포 단체·기구 ▲세계의 코리아타운 ▲분야별 재외동포를 찾아서 ▲재외동포와 글로벌 경제 ▲차세대 재외동포 등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1



2



3

김택수 인천발산초 교사는 “현행 초등교육 과정 안에서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하려면 각 교과서에서 관련 영역을 찾아내 교육안을 재구성하고 관련 콘텐츠와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이 보편타당한 것임을 국민에게 인정받고 이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직무연수와 자율연수 실시 ▲강사 인력풀 조직 ▲교사 연구모임 지원 등을 제안했다.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재외동포가 등장해야 재외동포 인식을 높일 수 있다”면서, “재외동포의 전형을 보여주는 롤모델, 감동적인 수필, 영화 ‘헤로니모’ 같은 영상, 뉴스, 데이터 등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쿠바 한인 지도자 임은조 선생의 삶을 조명한 다큐영화 ‘헤로니모’를 제작한 재미동포 전후석 감독은 자신의 정체성 변천 과정을 ▲한국인 ▲재미 한인 ▲코리안 디아스포라 ▲세계시민 4단계로 구분한 뒤,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이주민·다문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 이사장 “내외 동포의 국가 발전 기여방안, 학교 교육과 연계해 모색해야”

발표와 토론에 앞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동포는 모국과 거주국을 잇는 교량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왔을 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 인구절벽 시대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자 국력의 외연”이라고 평가했다. 한 이사장은 “재외동포의 가치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내외 동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민족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학교교육과 연계해 모색하도록 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4



5



6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환영사에서 “세계적 한류(韓流) 현상에는 해외 곳곳에서 근면과 성실로 각각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며 우리의 문화를 유지·전파하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들이 있어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어 “한민족으로서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는 내국인과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으며, 한류에 걸맞는 세계문화 시민의 자질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광호 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축사에서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관을 갖고 민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1, 2. 워크숍 개최식과 분과토론 및 종합토론 모습.

3. ‘재외동포 이해 제고와 학교교육 연계’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참석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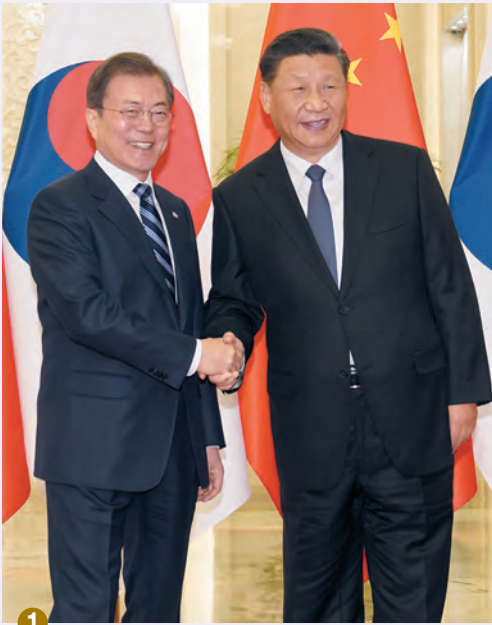
4.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워크숍 개최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5. 개최식 환영사를 하고 있는 양윤경 서귀포시장.

6. 기조강연에 나선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문 대통령 “북·미 대화중단, 이롭지 않아”...

한·중 정상회담... 문 대통령 “모처럼의 기회 결실 보도록 긴밀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우려가 강해지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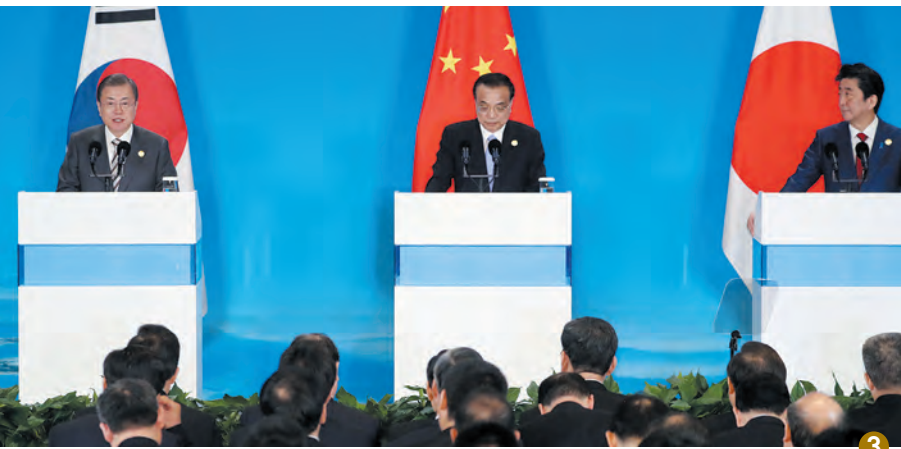


“잠시 섭섭할 수 있지만 양국 멀어질 수 없어”... 시 주석 방한 초청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이번이 6번째로,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은 6개월 만의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두고 양국이 갈등을 빚은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 초청 의사를 드러냈다. 아울러 “여러 번 중국에 왔는데 올 때마다 상전벽해와 같은 중국의 발전상에 놀란다”며 “중국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 주석의 리더십과 중국 국민의 성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한·중·일, 조속한 북·미대화로 평화 진전 함께 노력하기로”

문 대통령은 이어 12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의 국제회의센터



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중·일 3국은 한반도 평화가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고, 조속한 북·미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북아 3국 정상이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북한의 ‘중대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이어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나는 20년간 발전해온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국민이 협력 성과를 체감하도록 실질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3국 협력의 미래를 밝게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국 협력 정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게 이미 큰 성과로, 내년에는 한국이 이어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3국 협력 성과가 국민 삶을 이롭게 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아베 총리와 만나… ‘수출규제 조속해결’ 강조

12월 24일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아베 총리의 숙소인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났다. 지난달 방콕에서 11분간 ‘즉석 환담’을 하긴 했지만, 공식적인 정상회담장에서 한·일정상이 마주한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정상회담 이후 15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최장수 총리가 되신 것과 레이와 시대의 첫 총리로 원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축하드린다”라며 “‘레이와’의 연호 뜻과 같이 아름다운 조화로 일본의 발전과 번영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두 정상이 초점을 맞춘 분야가 미묘하게 달랐던 점도 눈에 띄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간의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협력에 무게를

줬다. 문 대통령은 “현재 양국 외교 당국과 수출관리 당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양국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수출규제 사태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 시 주석 올해 상반기 방한 확정적

한편 청와대는 12월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시기 등은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중 정상은 12월 23일 회담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 때문에 2020년 상반기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를 계기로 양 정상이 봉인 상태의 사드 갈등을 해결에 마침표를 찍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와 맞물려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완벽히 해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참]**

1.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2. 12월 24일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는 문 대통령.
3.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이 12월 24일 쓰촨성 청두 국제회의센터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4.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12월 24일 청두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하와이 이민선에 실은 ‘미주 한인의 꿈’ ... 올해로 117주년 맞아

사탕수수 농장에서 피땀 흘려 번 돈 쪼개 독립자금에 보태



1



2

대한제국 젊은이 121명이 1902년 12월 22일 인천 월미도 해상에 정박한 일본 선박 겐카 이마루(玄海丸)에 몸을 싣고 일본 나가사키(長崎)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신체검사에 탈락한 19명을 제외하고 102명이 미국 상선 게일릭호로 옮겨 타고 이듬해 1월 1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입항했다. 오랜 여정으로 건강이 악화된 9명이 되돌아가고 93명만이 오후 섬의 모쿨레이아 사탕수수 농장으로 투입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이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차이나타운을 형성해 미국인 상권을 위협하는 중국인과, 파업이 잦은 일본인을 대신할 노동력을 한국에서 찾았다. 대한제국 조정도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터에 농장주들의 부탁을 받은 주한 미국공사 호러스 알렌이 건의하자 노동력을 수출하기로 했다. 고종은 미국인 사업가 데이비드 데솔러에게 모집과 송출 업무를 맡기는 한편, 출입국 업무를 전담할 수민원(綏民院)을 궁내부에 신설했다.

주요 도시의 기차역, 항구, 시장 등에 이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붙었으나 당시 한국인에게 수만 리 떨어진 태평양의 외딴 섬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데솔러의 부탁을 받은 인천 내리교회 선교사 조지 존스는 하와이를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비유하며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첫 승선자 가운데 인천 출신이 86명이고 그중에서도 내리교회 신도가 50여 명이었다. 게일릭호를 시작으로 1905년 8월 8일 도착한 몽골리아호에 이르기까지 하와이 이민선들은 56회에 걸쳐 7천226명의 한인을 하와이에 내려놓았다.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479명을 뺀 실제 이민자는 6천747명이었다.

일본은 하와이 일본인 노동자들의 세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그러자 고종은 이민 금지령을 내렸다.

신랑감 사진만 보고 하와이로 건너간 한인 ‘사진 신부’ 950명 달해

하와이는 한인 이민자들이 꿈꾸던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 새벽부터 매일 12시간 동안 억센 수숫대를 잘라야 했고, 말도 통하지 않는 농장 감독자들의 비인간적 처우와 부당한 횡포에 시달렸다. 그래도 이들은 한인교회를 세워 공동체 결속을 다지고, 피땀 흘려 번 돈을 쪼개 독립자금에 보탬다. 1908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 노동자 출신 전명운·장인환 의사가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처단한 것도 항일 열기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사회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대부분 혼기를 넘긴



충각이었으나 결혼할 길이 막막했다. 당시 미국에는 동양인과의 결혼을 막는 금혼법이 존재한 데다, 결혼하러 모국을 다녀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농장주들은 음주·마약·범죄에 빠지는 노동자들이 생겨나자 작업능률을 높이고자 사진 중매결혼을 권장했다. 하와이 주 정부도 신부들의 입국을 허가했다. 모국 처녀들은 중매쟁이 권유에 따라 신랑감 사진만 보고 편지로 결혼을 약속한 뒤 하와이 땅을 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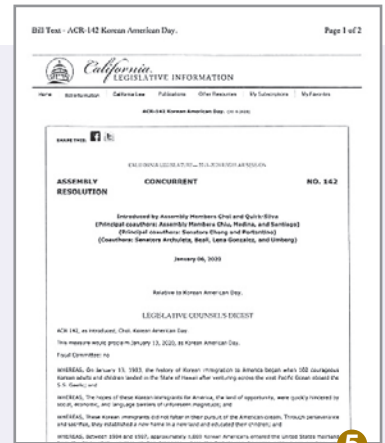
일명 '사진 신부'는 1910년 11월 28일 입항한 목포 출신 최사라를 시작으로 동양인배척법이 제정된 1924년까지 950명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사진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신랑의 모습에 실망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낙담했다. 그러나 고향에는 이미 결혼했다고 알려진 데다 되돌아갈 뻗샷도 없어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와이 이민자들이 가정을 이루자 한인 공동체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남편들이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내들은 샷바느질과 빨래 등으로 생계를 돕고 2세들을 길렀다.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도 속속 생겨났다. 한인들은 대륙으로도 진출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그로부터 110년이 지나는 동안 재미 한인사회는 엄청난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뤘다. 2019년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재미동포는 254만6천982명이다. 이전에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가 1위로 올라섰다. 미국 안에서도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재미 한인사회가 2세, 3세, 4세로 내려가며 가치를 뽐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뿌리가 되었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들의 헌신 덕분이다.

게일릭호 하와이 도착한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로 기념

2003년 1월 13일에는 100년 전 게일릭호의 하와이 도착을 기념하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기념사업회는 그해 5월 9일 '미주 한인의 날' (The Korean American Day) 제정을 결의했다. 기념사업회를 토대로 출범한 미주한인재단은 제정안을 각계에 청원했다. 2003년 10월 22일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와 2004년 1월 12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이어 2005년 12월 13일과 16일 연방 하원과 상원은 차례로 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인들이 미국 건설에 기여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 각지에서는 새해들어 한인 이민 117주년을 맞아 제15회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미주한인재단은 1월 14일 워싱턴DC 연방하원의원 회관 레이번 빌딩에서 기념축전을 열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날 '미주 한인의 날 기념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인 1.5세 최석호 주 의원 등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1903년 한인 102명의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사를 소개하고 한인들이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주요 구성원으로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내용을 담았다. 

1. 한인 102명을 태우고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이민선 게일릭호(국가기록원 제공)
2.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 투입돼 일했던 미국 하와이 주 오후우 섬의 모클레이아 사탕수수 농장. 1982년 찍은 모습이다.
3. 1월 10일 LA 한인회관에서는 로라 전 LA 한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 한인 이민 117년 기념' 헌기식이 열렸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4. 신랑감의 사진만 보고 하와이로 떠난 '사진 신부'들(여성사전시관 제공)
5.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미주한인의 날' 기념 결의안(LA 총영사관 제공)



재중동포로는 처음으로
세계한상대회장에 선출된
표성룡 회장

“올해 한상대회, 더 높은 수준의 한상 협력 도모하는 계기 되어야”

“조선족은 중국 55개의 소수민족 가운데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가장 잘 지켜왔습니다. 문맹률이 가장 낮고 대학 진학률은 제일 높아서 어디에 살아도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죠. 문제는 동북 3성을 떠나 새로운 거주지에서 자라나 현지화되어가는 차세대입니다. 이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1세대 기업인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중동포 표성룡(67)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의 말이다. 조선족에 대해 그가 가진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읽을 수 있다. 표 회장은 중국동포의 일이라면 열일 제치고 달려간다. 더 나아가 재외동포 문제에 관한 관심도 남다르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등 주요 재외동포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한다. 사업하랴 조선족기업가협회 챙기랴 몸이 두 개라도 바쁠 그가 이번에는 세계한상대회 대회장까지 맡았다. 재외동포재단은 10월 28~30일 부산서 열릴 제19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표 회장을 선출했다고 1월 2일 밝혔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9년 역사의 한상대회 최초의 재중동포 기업인이 한상대회장에 선출된 것은 한상의 단합이라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재중동포 기업인들이 오랫동안 북한에 투자해오고 있어, 남북경협이라는 그림에서는 인프라가 강화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회장은 “19차 한상대회에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동대회장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표 회장은 중국 선양에서 룡녕신성실업유한공사를 설립했으며, 심양심도강철시장관리유한공사, 심양계명경영관리유한공사, 캄보디아 과학발전유한공사 등 12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재중동포 기업인이다. 또한, 다양한 재중동포단체를 꾸준히 후원하며 재중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7년 표 회장이 주축이 되어 창설한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는 현재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내 32개 지부를 두고 3천여 명의 기업회원을 보유한 중국 대표 조선족기업인협회로 발전했다.

“박물관은 선조와 후손 대화 나누고 다른 문화 만나는 공간”

“미국은 우리나라 공식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뉴욕의 한인이민사박물관을 찾는 재미동포 후손들이 자긍심과 정체성을 깨닫고, 각국 관람객들이 미국 발전에 기여한 한인들의 헌신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6월 14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한인회관 6층에서는 한인이민사박물관 개관식과 관장 취임식이 열렸다. 초대 관장은 2015년 5월부터 4년간 34·35대 뉴욕한인회장을 지내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온 김민선(60) 씨다. 한인이민사박물관의 넓이는 560㎡(약 170평)이며 3층에 수장고가 따로 있다. 미국 사절단 보빙사의 방문 모습과 갤러리 사진을 비롯해 3·1운동 때 사용한 태극기 복판, 당시 기록을 담은 신문, 최초의



여권, 김소월 영문 시집 원본 등을 전시하고 있다. 입구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놓았고, 조선 시대 전통 사랑방을 재현한 민속관에서는 도자기와 고가구 등 고미술품을 선보이고 있다. 맨해튼 한인타운과 코리아센터 예상 조감도 등을 보여주는 미래관도 꾸몄다. 뉴욕에는 중국·인도·일본 등의 이민사박물관이 있는데도 한국 이민사박물관은 없었다. 이주의 역사는 하와이가 앞서고 동포 수는 LA가 많지만 뉴욕이 앞장서기로 했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낡은 한인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김에 전시관을 꾸미면 일거양득이라고 설득해 200만 달러를 모금했다.

김 관장은 현재 뉴욕 롱아일랜드 컨서버토리를 운영하면서 나소 카운티 인권국장으로 8년째 봉사하고 있다. 6년 전 한인회 이사장으로 한인 단체에 첫발을 디뎠다가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 뉴욕한인회 회장에도 출마했다. 당시 회장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승소해 1년 만에 회장 자격을 인정받았고, 세금 체납과 부당 임대계약으로 한인회관이 남의 손으로 넘어갈 위기에서 건물을 지켜냈다. 뉴욕한인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2017년 10월 뉴욕한인회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이듬해 6월 워싱턴 연방의회에 전시하는가 하면, 10월 맨해튼의 '코리안 퍼레이드'에서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뉴욕에 미주 최초
한인인민사박물관 만든
김민선 전 한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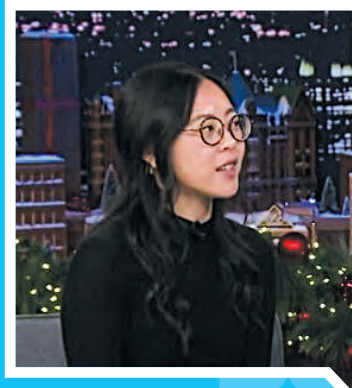
봉준호 감독 말맛 살린 '완벽한 통역' 화제

"자막, 그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Once you overcome the one-inch tall barrier of subtitles, you will be introduced to so many more amazing films)" 봉준호 감독이 1월 5일 골든글로브 수상 직후 했던 소감이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이를 통역한 재미동포 최성재(샤론 최·25) 씨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월 칸영화제부터 봉 감독과 호흡을 맞춘 최 씨는 봉 감독 특유의 말맛을 살려 통역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꼼꼼한 봉 감독이 "언어의 아바타"라고 칭송했을 정도다. 영화계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인 최 씨는 전문통역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영화를 찍기도 했다.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봉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살려 통역한다는 평을 듣는다.

최 씨의 통역 실력은 지난달 10일 방송된 미국 NBC TV 간판 진행자 지미 팰런의 '더 투나이트 쇼'에서도 빛을 발했다. 지미 팰런이 줄거리 소개를 부탁하자 봉 감독은 "이 자리에서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다. 스토리를 모르고 가야 더 재미있을 것 아니냐"고 답했다. 최 씨는 세심한 어휘 선택과 남다른 언어 세공술로 이를 맛깔나게 전달해 주목받았다.

이 방송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조회 수 100만 뷰를 넘었고, 국적과 관계없이 "통역이 나를 사로잡았다" "통역이 놀랍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최 씨의 각종 통역 영상은 유튜브에서 영어 교재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다. 외신들도 최 씨를 주목한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는 골든글로브 수상 후 봉 감독 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최 씨에게 마이크를 돌리었다. 영국 가디언지도 1월 2일 최 씨 등 영화감독 통역자들을 조명하는 기사를 실으면서 "수상 시즌의 MVP", "세계 최고" 등 네티즌이 최 씨에게 보내는 찬사를 전했다. 



봉 감독과 칸영화제부터
호흡 맞춘 재미동포 최성재 씨



문 대통령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남북 함께 노력해야”

신년사서 제안 “남북협력 증진할 현실적 방안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7일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 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 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한 것이다. 당시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답방한다고 명시됐고, 문 대통령은 이를 ‘연내 답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에 따른 경호·안전상의 문제와 북·미협상 난항 등의 문제로 북한이 답을 주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답방 제안은 지지부진한 북·미협상으로 북·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이끌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게 사실이고,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천만 거래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 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며 “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월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호응 희망…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노력 계속”

문 대통령은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거론하며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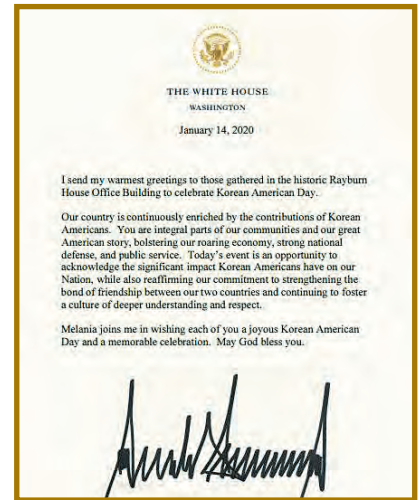
문 대통령 “한국전쟁 70주년… 한·미동맹 기반해 한반도평화 노력”

“미주 한인 255만 시대… 동포들 삶에 뜨거운 애국의 역사 흘러”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5회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서면 축사를 통해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온 겨레의 열망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축사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미주 동포의 삶에는 뜨거운 애국의 역사가 흐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03년 첫 미주 이민 세대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받던 하루 임금은 65센트에 불과했지만, 임시정부에 20만 달러라는 거액의 독립자금을 보냈다”며 “독립단체 ‘공립협회’, ‘국민회’, ‘홍사단’을 결성해 모국의 국권 회복에 앞장섰고 광복 이후에는 모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됐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국과 늘 함께해 준 동포 여러분은 한국의 자랑”이라며 “지난해에도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미국 전역에서 행진·전시회·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행사 등을 열어줬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미주 한인 255만 명 시대를 맞았다”며 “동포들은 미국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과 미국 모두의 자랑’으로 뿌리내렸고, 미국 의회는 한인들의 공헌을 기리고자 ‘미주 한인의 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부터 소수계 언어로는 미국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한글날’을 기념하고, 10월에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식적으로 상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민간 외교관으로 양국의 우정을 이어준 결과”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미주 한인들에게 “서로 돕고 소중히 여기며 단결해온 미주 동포의 삶을 보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상생 도약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한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확대하고 재외국민 교육자원을 위한 법·제도적



트럼프 대통령의 미주 한인
의 날 축하 메시지(사진·
LA 총영사관 제공)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과 차세대 교육 등 여러분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미주 한인의 날’ 축하 메시지… “한인 공헌에 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자 역사적인 레이번 의회 빌딩에 모인 이들에게 따뜻한 내 인사를 전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미주 한인들의 공헌으로 지속해서 풍요로워졌고 한인들은 위대한 미국 역사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인들은 우리의 타오르는 경제를 강화하고 강력한 국방과 공공서비스에 기여해왔다”면서 “오늘 행사는 미주 한인이 우리나라에 지닌 영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두 나라 간 유대·우정을 강화하며 깊은 이해와 존경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됨”을 강조했다.

NASA 달·화성탐사 임무 우주인에 한국계 조니 김 포함

1천600대 1 경쟁률 뚫고 선발... 2024년까지 달 탐사 투입 예정



NASA 우주인에 선발된 한국계 조니 김.(NASA 홈페이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달·화성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임무를 부여받게 될 새 우주비행사 11명에 한국계 의사 출신 조니 김 씨가 포함됐다. 조니 김 씨는 미 캘리포니아 주에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 출신으로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샌타모니카에서 고교를 마치고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UC샌디에이고),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매사추세츠 주 하버드대 제휴병원과 보스턴에서 종합병원 의사로 일하던 그는 해군 특전단(네이비실)에 입대해 특전훈련을 소화했고 컴배트V 실버·브론즈 메달을 받았다. 2017년 NASA에 들어온 그는 약 2년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 이번 우주비행사 선발은 지원자가 1만8천여 명으로, 선발된 우주인은 1천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었다. 이들은 1월 10일 미 텍사스 주 휴스턴 존슨스페이스센터에서 훈련 수료식을 했다.

짐 브라이덴스틴 NASA 국장은 "11명의 우주인은 미국의 베스트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2020년은 미국 땅에서, 미국 로켓에 탑승한 미국 우주인을 우주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SA는 이번에 선발된 우주인들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우선 투입해 훈련하도록 한 뒤, 2024년까지로 잡은 달 유인 탐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어 궁극의 목표인 화성 유인 탐사는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고 NASA는 설명했다.

40돌 맞은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열정의 배움터'

풍성한 기념행사... 학생들이 시 110여 편 담은 시집도 출판



카이로 한국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 장면.

먼 이국에서 한국 교육에 힘써온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교장 손병철)가 개교 40돌을 맞았다. 카이로한국학교는 12월 19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카타미아에서 윤여철 주이집트 대사,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조찬호 이집트 한인회장을 비롯한 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4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카이로한국학교는 1979년 12월 5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한국학교로, 1980년 4월 문교부(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이 학교에는 학생 2천여 명이 거쳐 갔으며 현재 5개 학급에서 어린이 24명이 배우고 있다. 카이로한국학교는 열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집트 한인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이지만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 도서관, 과학실, 컴퓨터실, 영어 어학실 등 높은 수준의 교육 여건을 자랑한다.

기념식에서는 학생들이 사물놀이 공연으로 흥을 돋운 가운데, 축시 낭송, 케이크 커팅, 표창장과 장학금 수여, 기념 영상 시청,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학생들은 무대에서 자신이 직접 쓴 시를 낭송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학생들이 개교 40주년을 맞아 1년간 정성스럽게 쓴 시 110여 편은 최근 '사막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집으로 출판됐다. 손병철 교장은 "교직원들은 앞으로 현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주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 사진 전시회 모국에서 열려

재미동포 방송인 김관호 씨 “역사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 없어…”



12월 26일 국회서 개막한 북미 한인 독립운동 사진전에서 재미동포 김관호 YTV 대표(사진 우측)가 노웅래(사진 좌측), 이종걸(가운데) 의원 등에게 유적지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미주 지역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여주는 ‘무궁화의 꿈, 북미대륙에서 피어난 한인 독립운동 사진전’이 12월 26~27일 국회 의원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 사진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상파와 케이블TV로 연합뉴스TV를 방송하는 YTV(대표 김관호)가 주최했다. 김관호 대표는 2017년부터 2년 간 미주 한인 차세대 대학생들과 함께 미국·멕시코·쿠바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해 책으로 발간한 데 이어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100주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사진전을 열었다.

김 대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서 독립운동 유적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현재 상황을 기록했다”며 “한인 차세대에 긍지를 심어주는 일인데 고국에서도 전시하게 돼 더욱더 뜻깊다”고 반겼다. 김 대표가 발로 뛰어 확인한 미주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는 미국 본토 118곳, 하와이 22곳, 멕시코와 쿠바를 포함해 182곳에 달한다.

전시에는 대한민국민회 회관,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소 터, 한국 공군의 기원이 된 월로우스 조종사 양성소, 서재필 병원, 이승만 거주지 등과 멕시코 메리다·멕시코시티의 유적지 등 주요 장소 60여 곳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새해에는 LA, 시카고 등 주요 한인 거주 지역에서 순회 전시도 열고 책자를 영문으로도 발간해 미국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 학생들, 학교서 ‘욱일기’ 퇴치 앞장

서경덕 교수 “새해에도 욱일기 퇴치 활동 벌여나갈 것”



뉴질랜드 내 한 학교에 걸려있던 욱일기(위)와 지금은 사라진 모습(아래).(서경덕 교수 제공)

각국 재외동포 학생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학교 내 벽 등에 걸린 욱일기를 퇴치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치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2월 31일,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내 욱일기 관련 제보는 2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이 동포 학생과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퇴치됐다고 밝혔다.

캐나다 서부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포 학생은 교내 교실 벽에 그려졌던 욱일기를 없앴고, 뉴질랜드에서도 학교에 걸려있던 욱일기를 걷어냈다. 또 학교 내 축제 포스터, 학교 공식 SNS에 게재된 욱일기 그림 등도 동포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로 사라졌다. 제보를 받은 학교 중 아직 해결하지 않은 곳은 서 교수가 직접 나서 학교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

서 교수는 “학교 측에서 잘 모르고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욱일기에 관한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한 일본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욱일기 문양을 사용했다고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 정식으로 항의해 당연히 없던 사례들을 잘 활용해 새해에도 퇴치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욱일기 응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국 네티즌들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성공신화 쓴 재외동포 기업인 임도재 회장 별세

각종 한인 활동에 앞장서... 탄자니아 등에 '우물 파주기' 전개



아프리카 최대 한상(韓商)인 고(故) 임도재 가나 글로벌엔지니어링 회장.

아프리카에서 성공신화를 쓴 대표적 동포 기업인 임도재(67) 글로벌엔지니어링 회장이 12월 27일 별세했다. 최근 암 투병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은 26년 전 SK건설 지사장으로 가나에 건너간 후, 5년 만에 독립해 건설회사인 '글로벌 엔지니어링', 수산업체 '해심', 장비 임대·운송업체 '글로벌 로지스틱스'를 운영하며 연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일궈냈다. 2008년 가나 한인회장을 맡은 후 한글학교를 세웠고, 70만 달러를 기부해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한인회관을 건립했다. 가나 현지사회와의 '친화'에도 적극적이었다.

안과·이비인후과·치과 병동을 각각 건립해 가나 국립제너럴 병원에 기증하는 등, 현지에서 사회공헌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2012년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를, 2015년에는 아프리카중동한상연합회를 각각 출범시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이들 단체를 통해 가나,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 여러 나라에 우물을 파주고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벌였다. 임 회장은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의 학교나 시골 마을은 우물이 없어 흙물을 마시고, 화장실도 없어 공중위생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인들이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팔을 걷어붙인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2017년 창원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2018년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을 맡았고 민주평통 아프리카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2013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남관표 대사 "도쿄올림픽서 한·일 우정 확인 아름다운 장면 기대"

"도쿄올림픽 성공 기원하는 재일동포 활동, 日 곳곳에 알려져"



남관표 주일대사가 1월 7일 오후 대사관 1층 강당에서 재일동포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1월 7일 올해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한·일 두 나라 간의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남 대사는 이날 오후 대사관 1층 강당에서 재일동포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도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재일동포 여러분들의 종이학 접기, 성금 모금 운동이 (일본 사회) 곳곳에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이어 "여러분들의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한·일 관계의 큰 물길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2018년 한국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언급했다. 그는 "2년 전 평창에서 우리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가 보여준 우정처럼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한·일 관계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길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사가 일본 사회에 알려졌다고 언급한 종이학 접기 운동 등은 도쿄 신주쿠(新宿) 지역의 한인 상인들이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지난해 12월 오리기 색깔의 종이학 2천20마리를 태풍피해 복구 성금과 함께 신주쿠 구청에 전달한 것을 말한다. 남 대사는 또 "지난해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작년 말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씩 새 희망의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창**



호주 한인들, 뉴사우스웨일스 산불 피해 돕기 모금

호주 한인들이 최근 발생한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에 나섰다. 시드니한인회(회장 윤광홍)는 1월 6일 "NSW 지역을 휩쓸고 있는 산불로 고통받고 피해를 본 지역 주민과 구조대, 소방관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한다"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한인들이 호주사회에 보은할 기회인 만큼 십시일반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인회에서 성금을 접수하고 있다. 전화(61-2-9798-8800)로 문의하면 된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오는 8월 한국 영사관 신설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오는 8월 한국 대사관 영사관(분관)이 설치된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1월 10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사진)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8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35만8천 명이며, 이 가운데 약 20만 명이 발리를 방문했다. 동포 600명도 발리에 산다. 김 대사는 "한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인이 27만8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1.8%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각국 새 한인회장 선출... "한국과 한국인 위상 높여겠다"

새해 들어 임기를 마친 한인회장의 후임이 나라별로 새로 선출됐다. 신임 한인회장을 국가별로 보면 폴란드 남종석, 홍콩 류병훈, 말레이시아 이태수, 오스트리아 임창노, 라오스 정우상, 사우디아라비아 젠타 김덕원 회장 등이다. 2년 임기를 시작한 한인회장들은 "계층·세대 간 소통으로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만들어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사진·왼쪽부터 남종석, 류병훈, 이태수, 임창노 한인회장)



고려인 박 빅토르 우즈베크 하원의원 재선 성공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최초 선출직 하원의원인 박 빅토르(62) 씨가 재선에 성공했다. 1월 7일 당선이 확정된 그는 여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임기 5년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사업가 출신인 박 빅토르 씨는 2012년부터 고려인문화협회 회장을 맡아 고려인의 자립과 권리 향상 등에 앞장서 왔다.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는 박 씨의 연임에 대해 "18만여 명에 이르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쾌거"라고 반겼다.

주홍콩총영사관, 제4회 '국제금융인의 밤' 개최

주홍콩 한국총영사관과 산업은행은 1월 14일 하버그랜드 홍콩 호텔에서 '제4회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는 2017년부터 세 번의 개최를 통해 홍콩 내 최대 규모의 한인 금융인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부터는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중사 한인과 재홍콩 한인 유학생 대표단까지 참여해 '멘토-멘티'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싱가포르 한인 경제인들 신년 오찬회, 특강 행사 가져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회장 봉세중)는 1월 9일 싱가포르 타워클럽에서 신년 오찬회 및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새해를 맞아 싱가포르 한인 경제인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안영집 주싱가포르대사를 비롯해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지상사 대표 등 한인 상공인 120여 명이 참석했다. 봉 회장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전체 동포 3만여 명 중 특히 청년들의 비중이 높다"며 한인 청년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베트남 축구를 변방에서 정상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

베트남 국민에게 자신감 심어준 것, 축구 승리보다 더 값진 선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드림(꿈)은 세계의 모든 한인 동포사회에 적용된다. 재외동포인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드림’을 이뤘다.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고 난 이후 거둔 실적이 말해준다.

23세 이하(U-23) 아시아선수권대회 준우승, 아시안게임 4강, 스즈키컵 우승... 박항서 감독이 아시아 축구 변방이던 베트남 대표팀을 맡아 1년 만에 이룬 업적이다. 박 감독의 지휘 아래 베트남 축구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록을 이어나갔다. 2019년 1월에 있었던 아시안컵에서 12년 만에 8강에 진출했다. 이어 12월 10일 동남아시아(SEA)게임에서 베트남 대표팀이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3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베트남 축구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쾌거였다. 베트남 전역이 ‘박항서 매직’에 환호하며 축제 분위기에 빠졌다.

변방에 머물렀던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 정상으로 이끈 것은 운으로만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박 감독의 남모르는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베트남행 비행기를 탄 그의 각오부터 남달랐다. 부임 후 하노이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그는 “나를 선택한 베트남 축구에 내가 가진 축구 인생의 모든 지식과 철학, 그리고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나로 인해 베트남과 한국 양국이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베트남 총리와 포옹하는 박항서 감독(사진 가운데). 응우옌쑤언 폭 베트남 총리는 지난해 12월 11일 동남아시아(SEA)게임에서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박 감독 팀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도 잊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경영학 사례로 삼을만하다. 체력 강화에 집중했던 히딩크 감독의 원칙은 서울 월드컵 대회 때 히딩크와 함께 했던 박 감독의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박 감독은 선수들에게 ‘베트남 정신’을 주입했다. ‘베트남 정신’에 대해 그는 “선수들의 패배감, 선입견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불리하다고 위축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당당하게 맞붙는 것이 베트남 정신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베트남 문화를 존중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소통과 애정으로 선수들과 교감했다. 오랜 경험에서 배어 나온 ‘겸손함’이 박 감독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의 성공신화는 개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베트남 동포사회, 나아가 한·베 양국 외교에까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박노완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는 박 감독

에 대해 “베트남에서 정말 귀중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박 감독의 성과가 베트남 내에서 국민적 단합, 화합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응우옌쑤언 폭 베트남 총리는 12월 11일 SEA 게임에 승리해 금의환향한 ‘박항서호’를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승리는 경제, 문화, 사회 발전에 영감을 줘 베트남을 강국으로 건설하는 데 모든 사람이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박 대사는 또 “베트남과 공식적인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박 감독의 역할과 성과를 이심전심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을 받는다”고 했다. 윤상호 하노이 한인회장은 ‘박항서 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규모일 것이라면서 “베트남 사람을 만나면 박항서 감독 얘기부터 한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참]

“한국 주재 스웨덴 대사로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계 입양동포 출신 첫 유럽의회 의원 김진달래 씨

“안녕하세요. 유럽의회 의원 예시카 폴피에르드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진달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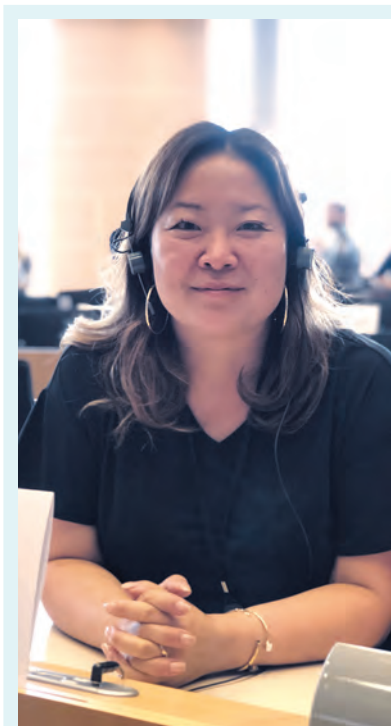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예시카 폴피에르드(49) 의원은 환한 미소와 함께 한국말로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지난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스웨덴 정치인, 그리고 한국계 입양동포 출신의 첫 유럽의회 의원이다.

1971년 5월 서울에서 태어난 폴피에르드 의원은 생후 9개월 때 스웨덴 부부에 입양됐다. 조용한 스웨덴 마을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다. 어릴 적부터 항상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7세이던 1988년 현 소속 정당인 ‘보수당’에 가입했다.

불과 20세에 시의원에 당선돼 정치를 시작했고 이후 스웨덴 의회에 입성해 4선 의원을 지냈다. 의회에 있으면서 EU발 이슈와 법안들이 스웨덴을 비롯한 각 회원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유럽의회 의원에 도전하기로 했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스웨덴인이자 유럽 시민으로서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임무에 평생을 바친 것이지만, 자신을 낳아준 나라 한국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한국계 스웨덴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자랑스러워졌죠. 사실 제가 어렸을



스웨덴 정치인 예시카 폴피에르드 씨, 한국계 입양동포 출신의 첫 유럽의회 의원이다.

때는 스웨덴에서 한국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저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가보고 많은 한국인과 위대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스웨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자신을 떠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

는 한국의 친부모를 찾으려고 해봤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 꽃 이름과 같은 그의 한국 이름은 입양기관에서 지어준 것으로 추측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1월,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가족을 만났다. 두 살 터울의 친여동생을 찾은 것이다. 더구나 동생은 그가 사는 곳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 동생 역시 스웨덴으로 입양됐던 것이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진짜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치인은 잘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동생의 페이스북을 찾아봤는데, 동생 사진을 보고 알았죠. 제 새끼손가락이 아주 짧은데, 동생도 똑같더라고요. 지금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어디가 닮았는지 찾아봅니다.” 업무상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그는 한국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가서 그저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뭐랄까 안심이 되는 기분이거든요.”

그는 앞으로도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자기다움을 지키고 현재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나의 꿈은 앞으로 5년간 유럽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국 주재 스웨덴 대사로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

김정은 연합뉴스 브뤼셀 특파원

우리 집, 24인의 독립영웅

백재흠(카자흐스탄)

얼마 전부터 나는 반강제적으로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여태까지는 굳이 역사를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 바로 '2019년 해외 한국사능력검정 특별시험'에 나도 모르게 엄마가 날 신청했다. 안 그래도 학교에서 보는 시험 때문에 진이 다 빠지는데 역사시험까지 준비해야 하는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런데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참 신기하다. 분명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점점 나아갈수록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재미가 의외로 쏙쏙하다.

특히 내가 사는 카자흐스탄에 관한 얘기도 나왔는데 아주 궁금했다. 카자흐스탄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알고 보면 이곳은 한국엔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고려인'이란 이름에도 그 아픔이 스며들어 있다.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우리 민족이 바로 고려인이다.

내 친구 중에서도 고려인이 있다. 개는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한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꼭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인이라 소개한다. 왜 그런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내 몸속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거든! 맞는 말인데,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러시아인처럼 생겨서 믿음은 안가지만...

얼마 전에 그 친구와 함께 알마티 교육원에서 열리는 3·1절 행사에 간 적이 있다. 올해도 만세삼창과 독립선언문 낭독, 합창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들이 치러졌다. 이런 역사적인 기념일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고려인이 모이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많이 오신다. 그들이 이국땅에서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잊지 않고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간직하고,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마침 올해의 행사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볼거리가 많았다. 조금 지루하던 1부보다는 2부가 훨씬 알찼다.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고려극단에서 준비한 흥범도 장군에 관한 연극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흥범도 장군은 항일투쟁을 한 독립투사다.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르면서 독립을 위해 힘썼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크즐오르다로 강제로 이주당했고, 결국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

연기하는 배우들이 고려인이라 발음과 억양이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연극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고려인의 발음과 억양이 더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나 싶다. 같이 간 내 친구는 하나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았지만, 나는 연극을 보면서 몽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이게 살면서 처음 본 연극이기도 하다. 나는 연극이 끝나고 한동안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살았다.

연극을 본 다음 날, 항상 문 앞에 걸려있던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해마다 엄마가 가져오는 달력이다. 고려일보사에서 나눠준다고 한다. 솔직히 색이나 디자인은 조금 촌스





렵지만... 오래 보다 보니 나름 괜찮아 보인다.

이 달력에는 특이하게도 항상 똑같은 24명의 사진이 있다. 예전의 난 그들에 대해 딱히 궁금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면서부터 호기심이 동했다. 과연 이들은 누굴까?

“Ли Дон Хви(이동휘), Хон Бом До(홍범도), Мин Гын Хо(민궁호), Хван Унден(황운정), Ге Бон У(계봉우)... (이 밖에도 19명의 사진이 걸려있다.)”

물론 낯익은 이름도 있었다. 연극에서 보았던 홍범도 장군, 의병장 민궁호, 얼마 전 뉴스에서 본 황운정 지사와 계봉우 지사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모르는 이름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자고 결심했다.

알고 보니 이들 모두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로 이주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정보를 찾는 데 의외로 애를 먹었다. 몇 명은 인터넷에는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직접 고려일보로 메일을 보내서 알아내기도 했다. 난 내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제법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다. 왜 이런 영웅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 사실이 안타까웠다.

게다가 달력의 인물 중에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다'의 황운정 지사도 있었다. 그는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곤,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독립투쟁을 이어갔다. 이국의 낯선 땅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투쟁에는 애국심뿐만 아니라 3·1 정신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이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유와 평등, 저항과 단결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난 역사를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 민족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끊임없는 저항의 반복이라고 한다. 외세의 침략, 지배층의 비리와 착취 탄압,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저항함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거머쥐었다. 벌써 2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촛불시위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한국이 아니라서 TV 화면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저 술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항의 촛불을 밝힌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다.

3·1 운동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항상 내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다. 만약 내가 3·1 운동 때 태어났다면, 난 독립영웅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내 민족 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도, 저 가혹한 고문과 수많은 회유 속에서 끝까지 내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을까? 솔직히 난 아직도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바로 거기에 3·1 운동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해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간단하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 

“해외 입양동포, 혈육 찾기 쉽도록 ‘DNA은행’ 설립 추진”

한우성 이사장, 신년 인터뷰... “재외동포 투표여건 열악” 지적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입양동포의 친족 만남을 지원하기 위해 DNA 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월 15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해외에 입양된 사람이 서류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친부모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이사장은 “이미 실종자나 전사자 가족 찾기에 DNA가 활용되고 있다. 희생자에게 5만~6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DNA 뱅크에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면 현재보다 친족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측과 협의한 결과 현재 하드웨어 나 노하우는 이미 갖춰져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만 개정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는 권익 증진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재외동포들의 투표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LA총영사관의 경우 관할지역 구



재외동포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 중인 한우성 이사장.

모가 대한민국 면적을 크게 웃돌고 있지만, 투표소가 LA 총영사관과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등 3곳에만 설치돼 있다”며 “이는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이나 신의주까지 가서 투표해야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살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재외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장기적으로 투표소를 늘리거나 우편 또는 전자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2023년 서울 강서구 마곡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준공을 목표로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설립될 재외동포 관련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는 해외이주 역사전시관과 내국인 청소년들의 체험 학습장, 차세대동포 정체성 교육장 등을 갖추고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재외동포 차세대와 주류화 윤인진(북코리아)

이 책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독일의 재외동포 차세대 현황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 내 주류화에 관한 연구를 담고 있다. 각 국가의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가진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지위 정도, 사회·문화적 통합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 각국 재외동포사회의 주류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떡볶이가 뭐라고 김민정(뜻밖)

재일동포인 저자는 일본에 거주하며 겪었던 모국과 모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 ‘엄마의 도쿄’, ‘소설 도쿄’ 등을 펴냈다. 최근 작가 특유의 시각으로 떡볶이에 관한 담론을 유쾌하게 풀어낸 에세이를

발간하였다. 떡볶이는 한국인이자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하지만 이 간편한 한 끼의 식사가 주는 위안은 대한민국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떡볶이란 음식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위로하는 방법을 만나보자.



만주일기 박명호(인타임)

두만강과 압록강을 너머의 공간 만주에는 우리의 말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활 터전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한국행 붐과 조선족 사회의 붕괴로 만주 일대의 조선족 문화도 조만간 없어질지 모른다. 이들의 이야기속에서 재중동포의 삶과 애환을 들여보자.



바른 말 고운 말

덕분에 좋았다

“어제 달리기 시험에서 이겼는지?” “다 영수 때문에 이긴 거야. 영수가 마지막에 잘 달려 줬거든.” 이 대화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하나 사용됐습니다. ‘때문에’라는 표현이 잘못 쓰였습니다. 이 ‘때문에’라는 말이 어떤 명사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왔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또는 ‘일 때문에 쉴 틈이 없다’처럼 부정적인 의미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앞의 명사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거나, 고마움을 표현하게 될 때는 ‘때문에’ 대신 ‘덕분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의 대화에서도 영수가 잘 달려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므로 ‘영수 덕분에 이겼다’고 말해야 어법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수가 잘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와 같이 ‘~기 때문에’의 형태로 쓰일 때는, 좋은 결과가 왔을 때 사용해도 의미상으로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초주검이 되다

우리말 동사인 ‘죽다’와 관계있는 명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주검’입니다. 우선 ‘죽음’이라는 말은 ‘죽는 일’이라는 뜻으로 ‘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삶’의 반대말이 됩니다. 반면에 ‘주검’이라는 말은 ‘죽은 상태’라는 뜻도 있고, 또는 ‘시체’를 가리키는 우리말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몹시 다치거나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아니면 너무 심하게 일을 해서 거의 다 죽게 된 상태가 됐을 때, ‘초주검이 됐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주검’을 잘못 된 표현인 ‘초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일만 하더니 초죽음이 됐구나” 이처럼 ‘초죽음이 됐다’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초주검이 됐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2019년 12월호 정답

태	양	김	미	현	부	여
백	소	장	재	판	의	
산	수	화	팔	매	화	주
	우	김	만	중	재	
기	미	년	대	불	경	기
	양	자	장	가	보	
울	가	미	경	일	기	장
빠	국	자	모	시	독	
미	소	구	기	자	등	대

▶ 오른쪽 방향 열쇠

- 설날이 지나고 보름 후에 오는 명절
- 이를 닦을 때 칫솔에 묻히는 것
- 돈이나 대가를 받고 몸을 파는 것(성적 상대가 되어 줌)
- 금속·나무·대 등의 관을 입으로 불어서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
- 신문을 편집하여 발간하는 회사
- ‘일송정 푸른 숲은 늙어 늙어 갔어도...’로 시작되는 노래의 제목
- 일반적으로 조개의 체내에 생긴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슬 모양 또는 반구상의 광택이 나는 결정 덩어리. 우아한 빛깔의 광택 때문에 보석 광물의 하나로 사랑받는다
- 앞으로 걸어나감
- 표면이 이물질에 의해 상처가 나는 것. 또는 굵힌 자국
-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구분하는 선
- 살아 있는 동물을 수집하여 사육·번식시켜 일반에게 관람시키는 사회교육 시설
- 물건을 ‘팔다’에서 ‘팔다’의 반대 개념
- 혼인할 때 음양오행설에 따라 신랑 될 사람과 신부 될 사람의 사주를 보아 배우자로서 두 사람의 적적 여부를 점치는 방법
-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한자성어

▶ 아래쪽 방향 열쇠

- 설을 주제로 한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까마귀와 조류. 이것이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속설도 있다
-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씌워주던 관
- 소리를 잘 못 듣는 사람이 소리를 잘 듣기 위해 귀에 장치하는 것
- 이십사절기의 하나.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들며, 이때부터 봄이 시작된다
- 한방에서 약을 짓는 데 필요한 약의 이름과 분량을 적은 종이
- 영화관이나 공원에 들어갈 때 표를 파는 곳
- 인사, 감사, 화해 따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사람이 각자 한 손 또는 두 손을 마주 내어 잡는 일
- 새로 들어오는 학생
- 사진을 찍는 기계. 카메라
- 후진국의 반대로 잘 사는 나라를 일컫는 말
- 천구(天球)의 두 극과 천정(天頂)을 지나 적도와 수직으로 만나는 큰 원
- 양동이에 물을 ‘○○다’
- 말이나 소의 먹이
-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조선 시대의 궁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고종 2년에서 고종 5년 사이에 흥선 대원군이 재건하였다
- 비단이나 화선지에 붓, 먹, 안료를 사용하여 동양의 전통적 기법과 이론에 따라 그린다
- 한국 최초의 국립극장. 1908년 이인직이 개설한 극장
-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네 간지(干支). 또는 이에 근거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점
- 두 손바닥을 마주 합침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이극범

전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회장

1980년대 초 유럽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하면서 유럽인들에게 한국 유학생이라는 설명을 하면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반문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세계지도를 그리며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조그만 한반도를 설명하곤 했다. 별다른 자랑거리도 없었다. 그들 중에는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에 관해서 언급한 것을 어렵듯이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 한국에 관련된 뉴스들이 터지면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놀라움과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88올림픽 뉴스는 연일 서울의 건물들과 멋진 의상을 한 한국인 모습이 외국 TV에 소개되는 계기가 됐다. 2002년 서울 월드컵의 신화는 세계 구석 구석까지 한국의 위상을 높이 끌어올려 놓았다. 특히 우리 2세들은 연일 대형 태극기를 들고 파리의 샹젤리제와 런던 거리를 몰려다니며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하며 목이 터지라 외치기를 한 달 넘게 했다. 소수민족의 위축감과 소외된 한국인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낮의 햇볕에 눈 녹듯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아프리카와 남미 중동 등 선교현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선교현장을 장악하며 앞장섰던 서구 선교사들 틈에서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선교 국가로 등장한 것이다. 사역 내용 면에서도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빈민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며 병원을 설립하여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난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이웃 나라의 젊은이들이 찾아와 목숨을 바쳐 희생하고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여 우리를 돌보아 준 데 대한 보답 차원이기도 한다. 선교의 현장에서 과로한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다.

해외에 살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 이제 조국 대한민국은 자랑거리가 많아 졌다. 세계 공항마다 삼성 핸드폰과 LG TV 광고판을 볼 수 있고, 한국 냉장고는 유럽인 가정에서 선호하는 고급 제품이다. 750만 디아스포라의 긍지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듯이 연일 뉴스가 터진다.

유럽인의 국민 스포츠는 나라마다 축구이며 그 열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손흥민은 노벨상 효과만큼이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베트남의 박항서와 미국의 류현진도 그렇다. 이제 프랑스에는 대학마다 한국학과가 개설된 지 오래며 고등학교는 더 많아졌다. 이 모두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민족이며 얼마 전 타계한 고 김우중 선각자의 말처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는 OECD 회원으로서 당당한 선진국 대열 열차에 올라탔다. 그러므로 한국이 자랑스럽다. 재외동포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긍지가 있다. 당당하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많아졌다. 삼성 폰, 손흥민, 류현진, 박항서 같은 뉴스가 계속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 자랑거리는 재외동포들의 어깨를 훨씬 가볍게 해 줄 것이며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 분명하다.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안넷으로



75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안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안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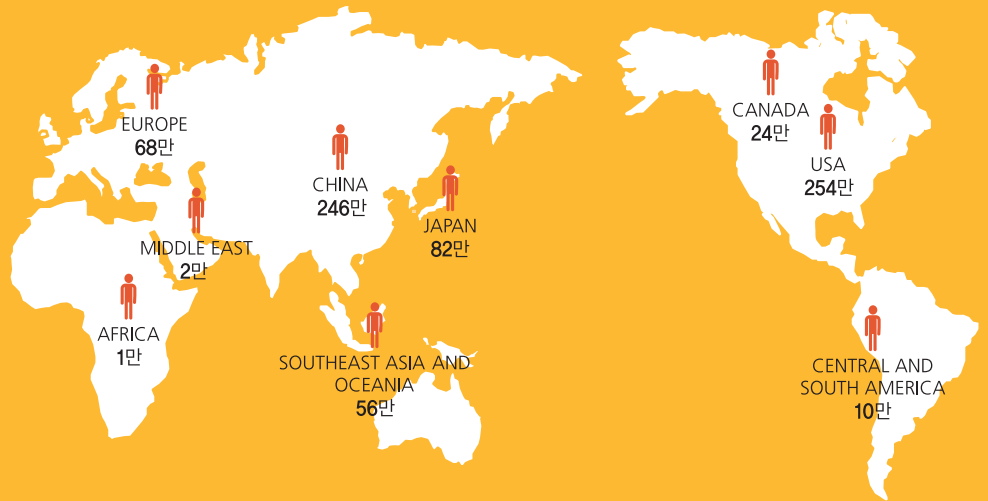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

KOREAN NET

WEB www.korean.net

TEL +82-64-786-0292

EMAIL gkn@okf.or.kr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5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